

# 전북이라서 더 특별한, 환경교육 한마당 개최

### 6월 1일 정읍시문화공원, '매일매일이 탄소중립 페스티벌' 환경교육 시범도시 육성 비전선포 등 주민자치적 실천 다짐

전북특별자치도가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6월 1일 정읍시문화공원에서 '전북이라서 더 특별한, 전북특별자치도 환경교육 한마당'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환경교육 한마당은 도와 정읍시, 환경교육센터,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환경교육 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하고, '매일 매일이 탄소 중립 페스티벌'이라는 주제로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서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알리고, 친환경 문화 실천 및 확산을 다짐하는 첫 행사이다.

환경교육 시범도시를 지정하여 환경교육의 내실을 기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그간 교류의 기회가 적었던 환경동아리 간 교류회도 진행된다. 경진대회를 통해 활동 사항을 발표하고, 더불어 우수한 사례는 공유하며, 청소년, 사회 동아리 참여자가 미래 환경 실천운동을 다함께 추진하자는 교류의 장을 연 것이다.

재활용품을 활용한 예코티어링, 리사이클링 북아트, 책식 보드게임 등

자원순환, 탄소 중립 등 환경 실천 운동을 소개하고 함께하는 23개의 부스가 운영되며, 환경 보드게임 플레이 존, 환경 그래픽 도서관, 반려견과 함께하는 풀링 등 다채로운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특히, 이번 행사는 현수막, 배너 등 홍보물 제작을 최소화하고 종이보드를 활용한 안내판 제작, 대화용기 대여, 텀블러 지참시 얼음과 음료 무료 제공 등 일회용품 안쓰는 환경축제로 개최된다.

도와 정읍시는 행사장 인근의 청소년수련관에 휴게시설을 마련하고 파라솔, 타프 등을 설치하여 무더위와 우천에 대비하고, 추락 및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안전요원과 의료인력 배치한다. 또한, 응급사태에 대비한 구급차 배치 등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사전점검하는 등 쓰레기 없고, 안전한 환경행사 추진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강해원 전북특별자치도 환경녹지국장은 "환경교육은 작은 빗방울이 모여 큰 힘을 발휘하는 물줄기처럼, 어릴적부터 몸에 베인 일상생활의 사소한 습관이 우리모두를 지속가능한 삶으로 안내해 줄 것"이라며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알리고 도민 모두가 실천하는 생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는 지난 29일 순창 실랜드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과 공동으로 '2024년 지방세 연찬회'를 개최했다.

## 전북자치도 지방세 담당공무원 '열공모드'

### 지난 29일 지방세 연찬회에서 도·시군 지방세 제도개선 논의 최우수 발표자 '전국 지방세 발전포럼'에 도 대표로 참가

전북특별자치도와 도내 14개 시·군 지방세 담당 공무원들의 화구열이 뜨겁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29일 순창 실랜드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과 공동으로 도와 시·군 지방세 담당 공무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지방세 연찬회'를 개최했다.

지방세정 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지방세 발전방향 모색 및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한 이번 연찬회에서는 △지방세 제도개선 방안 △새로운 세원 발굴 △납세 편의 시책 등 시·군에서 제출한 14건 중

사전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 6개 우수 연구과제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내용 전달력, 토론 대응력, 청중 관심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취득세 과세 방안'을 발표한 김제시의 최동광 주무관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최동광 주무관은 하반기 개최 행안부 주관으로 개최 예정인 '전국 지방세 발전포럼'에 전북특별자치도 대표로 참가하게 된다.

이외에도 전주시 최경도 주무관의 '과점주주 취득세 개선방안 연구'와

군산시 이삼미 주무관의 '버려진 세금(컨테이너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가 우수상을 차지했고, 익산시 백인해 주무관의 '공중잡음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방안', 진안군 김주희 주무관의 '디지털 휴면에 대한 지방세 과세방안', 순창군 문성우 주무관의 '차량 등 취득세를 조성을 통한 지방세수 확대방안'이 장려상을 받았다.

이날 행사에서 '2024년 지방세정 종합실적평가 시상도' 이어졌다.

2023년 시군의 지방세정 운영실적(13개 항목 22개 지표)을 시부와 군부로 나눠 평가한 결과 남원시·고창군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최우수상에 전주시·진안군이 으뜸상에 정읍시·장수군이 각각 선정됐다.

/이만호 기자

## 데미샘자연휴양림으로 여름휴가 떠나자

### 전북특별자치도, '여름 성수기 예약 추첨제' 시행 6월 3일부터 20일까지 '숲나들' 누리집 통해 신청

전북특별자치도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천혜의 자연경관이 살아 숨쉬는 섬진강의 발원지 데미샘 자연휴양림의 여름 성수기 예약 추첨제를 시행한다.

여름 성수기인 7월 15일~8월 24일 기간에 이용객이 집중될 것을 고려하여 예약 과열을 방지하고 공평한 휴양림 이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휴양림 여름 성수기 예약 추첨제'를 시행한다.

숙박시설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은 '숲나들 시스템'을 통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예약신청은 6월 3일 오전 9시부터 20일 오후 6시까지 실시하며, '숲나들' 누리집을 통해 숙박 기간 최대 2박 3일 가능하고, 신청자는 이용을 원하는 날짜와 객실을 지정하여 신청을 하면 된다.

추첨 방법은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일차·숙소별로 예약 시스템 상에서 무작위 추첨으로 1명씩 당첨자를 결정하고, 6월 21일 당첨자에게 휴대폰 메시지로 알린 후, 시설사용료 결제기간 중 결제가 이

뤄지지 않을 시 당첨이 자동 취소된다.

추첨된 숙박 결제기간은 6월 21~27일이며, 본인 취소 또는 미결제된 객실은 6월 28일 오전 9시에 선착순 예약방식으로 전환된다.

송경호 전북자치도 산림환경연구소장은 "성수기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만큼 성수기 추첨제 운영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데미샘 자연휴양림에서 피로한 심신을 치유하고 힐링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섬진강 발원지가 소재한 전북특별자치도 산림환경연구소 데미샘 자연휴양림은 230ha의 넓은 부지에 숲속의 집(10동), 한옥형 숙박시설(2동), 휴양관(1동 11객실), 숲 문화마당, 명상의 숲, 물놀이장, 북카페, 산책로, 어울림 숲, 전망대 등 다양한 객실과 편의시설을 갖춘 산림문화·휴양의 공간이다.

/이만호 기자

## 도,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만 65세 이상 어르신(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2024년 기준)들의 건강과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 예방을 위해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폐렴은 국내 사망원인 3위(2022년 기준) 질환으로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폐렴구균으로 인한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은 매우 치명적이다.

이에, 정부는 어르신의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 예방으로 질병 부담을 감소하고 건강수명 연장을 위해 2013년부터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어르신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추진 해왔다.

만 65세 이상 중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을 한 번도 접종하지 않은 어르신은 건강 상태가 좋을 때 보건소 또는 지정의료기관에서 무료로 1회 접종할 수 있다.

강영석 전북자치도 복지여성보건의료장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만호 기자

## 도, 공중보건장학생 대상 공감캠프

### 졸업생 및 공공의료기관 종사자와 연대의식 고취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단장 오경재)과 함께 30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공중보건장학제도 재학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공감(共感)캠프(이하 공감캠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중보건장학제도는 의사 또는 간호사 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을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일할 것을 조건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학금을 주는 사업이다.

전북자치도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이번 공감 캠프는 공중보건장학제도 장학생과 졸업 후 의무복무 중인 졸업생을 포함해 공공의료기관 종사자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연대의식을 고취하고자 마련됐다.

오전에는 오경재 전북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의 '공공보건의

료의 개념과 역할'에 대한 강의와 강영석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의료장의 '전북 공공보건의료 정책 이해'에 대한 강의가 있었으며, 오후에는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팀빌딩과 워크숍으로 진행됐다.

강영석 국장은 "공중보건장학생들은 예비 공공보건의료인으로서 지역 거점공공병원에 근무하며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에 기여할 인재들"이라며, "공공보건의료의 미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경재 단장은 "공공의료에 사명을 갖춘 학생들과 직원들이 모인 자리인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연대감을 형성하여 졸업 후에도 공공의료기관에 종사하며 서로 의지하고 힘이 되어주는 관계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